

환상 아닌 구체적 현실 보여주는 동화

권정생의 「몽실언니」

다른 어떤 종류의 책보다 동화책이 읽고 싶을 때가 있다. 간혹 혹은 자주, 세상에 얽음을 일으키면서 견딜 수 없이 간결해지고 싶을 때나, 반복대는 일상 속에서 읽고 있을지도 모를 '희망'을 문득 확인해 보고 싶을 때가 그렇다. 나의 경우, 그것은 어떤 약보다도 특효였고, 처방과 동시에 희망하기 시작하고 보다 투명해진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한다.

물론 모든 동화책이 다 같지는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건 아니다. 몇몇 작가의 작품에 국한되거나, 또는 어떤 작가들의 몇 작품에만 한정된다.

최근 「몽실언니」를 읽게 된 것은 TV주말연속극 때문이었다. 얼마전 권정생님의 「강아지똥」을 읽으며, 과연 동화가 이보다 더 교훈적이면서도 아름다울 수 있을까 놀라와했었는데, 어떻게 그 작가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몽실언니」가 남녀간의 애증과 삼각관계로만 일관하던 성인드라마에 텍스트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때문이었다.

「몽실언니」는 해방 이듬해부터 6·25전쟁 직후까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작가의 말을 빌면 "죄없는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것은 '어디선가에 있는 그 누구' 때문이며, 그 누구에 의해 조종되는 전쟁"의 와중에서 죄없는 어린 몽실이 겪어야만 했던 치명적인 고난을 그리고 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어머니 대의 눈물겨운 이야기이기도 하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도망간 엄마, 배다른 동생이 태어나면서 그만 천덕꾸러기로 전락해 버리고 다리병신까지 되는 몽실, 새아버지의 구박을 견디지 못해 친아버지를 찾아오나 아버지는 가난하지만 성실했던 기억속의 아버지가 아닌 욕쟁이에 술꾼으로 변해 있다. 아버지의

재혼, 그리고 전쟁, 핏덩이 동생 난남이를 남기고 새엄마가 죽자 몽실은 쌀을 씹어 암죽을 끓여먹이는 등 죽을 고생을 다해 동생을 돌본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강아지똥」에서처럼 존재감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동화를 쓴 작가가 어쩔 이토록 슬픈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깐 잠기게 된다. 그리고,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작가의 철저한 역사인식과, 힘없고 가난하여 소외된 사람, 또는 억압받고 고통받는 모든 생명에 대해 뜨거운 연민과 애정의 눈도 발견하게 된다.

동화로 조금 독특한 점은 몽실은 전쟁의 와중에서 국군과 인민군을 모두 만나게 되는데, 작가는 인민군쪽에 더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게 한다. "국군하고 인민군 중 누가 더 나빠?" 하는 몽실의 의문에 작가는 인민군의 입을 통해 이렇게 답하게 한다. "국군 중에도 나쁜 국군 좋은 국군이 있듯 인민군도 그렇단다. 누구나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면 착하게 사귄 수 있지만 신분이나 지위, 이득을 생각해서 만나면 나쁘게 된다" 등으로.

한 여자 인민군에게서 몽실은 착했던 새엄마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같은 화자의 선택은 아마도 반공이데올로기 교육하에 인민군은 무조건 나쁘고 국군은 무조건 옳다고 세뇌되어 있는 우리 어린이들의 편중된 시각에 균형감을 이루기 위해 배려한 작가의 의도적인 안배가 아니었나 싶다.

최영임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미성APT 10동 611호

생활언어로 노래한 삶의 일상적 모습

이재무의 「온다던 사람 오지않고」

근래의 서정시들을 읽다 보면 의미가 모호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詩語들을 만나게 된다. 물론 독자들의 성향이나 개인차에 의해서에 대한 인식 정도가 차이는 건 당연하겠지만, 일정한 인식의 보편적 공간은 있어야 할 것이다. 시와 현실이라는 관계 속에서 살펴볼 경우 이러한 점은 더욱 뚜렷이 부각된다.

이재무의 두번째 시집 「온다던 사람 오지않고」는, 문학은 바로 삶 자체라는 소박한 명제에 충실하고 있다. 이 시집의 저자는 화려한 말의 유희나 무리한 문장의 변형을 피하지 않으며, 삶의 일상적인 모습들을 생활언어로 노래하고 있다.

이재무 詩의 화자는 우리의 잃어가는 그리움을 쫓아가고 있다. 그 쫓음은 고향이며 전원적인 추억을 가진 농촌이다. 그러나 이 고향은 시간이 정지된 과거에 속해 있지 않다. 오늘의 농촌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그의 가족사를 중심으로 하여 적절하게 서정의 화폭에 담아, 고발해 내고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해 현재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이 전체 사회구조의 모순과 무관치 않다는데 그의 시적 인식이 닿아 있기 때문이다.

"녹슨 연장 늘어갈수록 / 나라의 땅 황폐해진다 / 나라의 살림 가난해진다 / 누가 연장을 놀게 하는가 / 누가 그들을 무기로 만드는가" (「연장」 中)

그의 시집 대부분의 시들이 정치적 현실과 사회경제 모순에 대한 비판내지는 고발로 시의 깊이와 폭을 넓혀 나가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필연적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정치적 파행성 혹은 사회경제적 모순에 대한 고발내지 비판을 시의 내용으로 삼을 때에도 일반 민중시에서 보여지고 있는

직접성으로서가 아닌, 상징 내지 비유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적 드러냄은 90년대의 민중시가 지향해야 할 민중적 서정성의 詩作 태도이며, 동시에 현실 삶의 여러 진실된 내용들을 시적 긴장을 갖춘 완결된 시적 구조속에 도출해내는 올바른 의미에서의 시의 접근 자세이다. 그런데 바로 이런 공감의 획득은 그의 시 전편에서 흐르고 있다.

하찮은 대상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소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보잘것없는 우리들 삶의 작은 진실이 커다란 사회와 역사를 이루는 원동력이 됨을 보여주는 이재무의 시는, 그의 시가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을 형상화할 수 있는 커다란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기에 이 시의 제재나 정서는 시인 자신의 것인 동시에 바로 우리의 것이며, 그러한 대상에 대한 진한 그리움과 애정의 표시는 그의 시가 우리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내게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다. 그것은 살아가면서 밝은 추억이 자주 생기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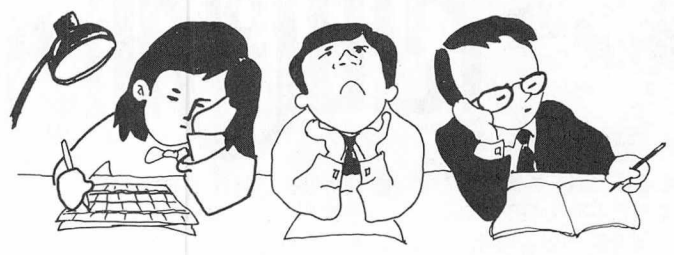
그러나 나는 그러한 행운이 쉽게 오리라 믿지 않는다. 소망은 내 의지를 언제나 꺾어다녔으므로 그저 주어진 삶과 살아갈 삶을 부지런히 살 뿐이다. 끝끝내 꿈을 버리지 않으며..."

(「온다던 사람 오지 않고」서문 中)

백운학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494-29

출판·편집계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90 추계 언론 취업반 모집요강
편집자, 기자, 레이아웃터,
교정자, 카피라이터

※ 수강예약마감: 9월29일
무료공개특강: 9월29일
수강대상: 교졸(예정자) 이상, 전문대, 대졸

엘리트편집인 전문양성 교육기관
한국편집디자인센터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73-3 (인성빌딩 2F)

(代) 812-1715~6
취업인력 정보실 FAX. 814-3387

이삭을 줍는 것을 배웠습니다.
구슬같은 그 이삭을 보배로
깨어야하는 인내도 배웠습니다.
가끔은 낮과 밤 구별없는
일과의 싸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칼날같은 업무를 하는,
그러나 자상하신 편집장 님도 만날 것입니다.
진정 활자밥을 먹겠다는,
그리하여 오직 한 길을 가고픈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저희들을 채용해 주신 출판·편집계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 드리겠습니다.

봉제공장 미싱사 삶 담은 '노동소설'

차주옥의 「함께 가자 우리」

차주옥이 쓰고 실천문학사가 펴낸 장편소설 「함께 가자 우리」는 앞서 나온 노동관계 책들과는 다른 각도로 독자에게 다가온다.

이 소설은 봉제공장의 미싱사인 여성노동자 계순을 중심으로, 계순이 함께 일하는 다양한 노동자들과 학생 출신 노동자들과 그들의 주변생활에 이르기까지 차분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차분한 묘사는 다듬어진 문체와 함께 이 소설이 가진 장점의 일부이다. 이 점은 봉제공장의 작업과정과 노동자들의 힘겨운 공장생활에서 살아남아, 독자는 이를 통해 아주 자연스럽게 열악한 노동조건에 접근하게 되고 노동자들의 생명력을 느끼게 된다.

기존의 노동관계 소설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의 부분에 보다 비중을 두었다면 이 소설은 삶의 영역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 계순과 그 동료들의 노동조합결성투쟁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며 그 점에서 미완성이다. 그러나 계순네들의 건강한 노동자로서 거듭나는 새로운 삶이 가지는 절의 획득은 다분히 완성적이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노동조합결성에 소극적이던 경임이가 밤길을 달려 결성준비모임에 합류하는 과정과, 평소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방황하던 반장 선금이의 결심 등이 진한 감동을 불러 일으킨다.

이 소설의 구성은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다. 1부는 전형적인 여성노동자 계순이 학생 출신 노동자 미자를 만나면서 경험하는 새로운 생활과 해고생활을 보여주며 계순의 절망으로 끝난다. 2부에서는 계순이 새로 취업한 봉제공장 여성노동자들의 일상생활과 학생출신 노동자 순이의 활동, 계순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는 모습, 순이를 주축으로 한 노조결성

준비과정 등이 한데 어우러져 눈부시게 전개된다.

자칫하면 이 두 구성이 86년과 87년이라는 노동운동의 흐름에 대한 도식적인 설명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글쓰기가, 여성노동자 계순의 삶의 깊이가 가지는 그 팽팽한 줄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파고들어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 구성을 무리없게 만들면서 소설 전체에 활력을 주는 것은 여성노동자들의 정서가 흠뻑 배어있는 대화의 묘사이다. 이를 통해 녹아나는 그들의 계급적 각성과, 노동현장의 절실한 체험에서 나오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신뢰, 그 결합된 과정이 독자에게 신선하게 느껴지며 감동을 더해준다.

따라서 「함께 가자 우리」는 80년대 실재했던 노동자들의 의식적 성장과 노동운동의 성과를 담아내면서도 소설적 구성과 흥미를 잃지 않고 있다.

70년대 「전태일평전」 「어느 돌맹이의 외침」으로 시작된 노동자수기는 노동현실의 폭로라는 성과를 거두었고, 80년대 단편소설과 특히 장편소설 「파업」과 뒤에 나온 「활화산」 등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 눈물겨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깊은 감동을 주었다.

이제 「함께 가자 우리」가 획득한 새로운 노동자상은 이제까지의 노동문학의 성과와 결합하여 앞으로의 노동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주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 2동 331-10

신화의 뿌리, 보들레르의 여정

베르나르 앙리 레비의 「보들레르의 마지막 나날들」

20세기 현대시의 저편에 신화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리하여 신과 영웅들이 그들의 삶의 편린들을 흡사 눈보라처럼 지상의 인간들 위로 흩뿌려주고 있다면, 보들레르는 분명 그들 중의 하나로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누군가의 말처럼, 현대인의 의식 어느 곳엔가는 '보들레르적'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어둠이 있다. 영혼과 육체의 분열속에서 남김없이 드러난, 그저 인간일 뿐인 한 피조물의 형상. 보들레르가 오늘날, 우리들의 추앙 속에 하나의 빛으로 떠오른다면, 그것은 그 빛의 저편에 인간실존의 고통이 너무나 어둡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중세·근대에 걸친 인간의 역사가 신에서 인간으로의 과정이었다면, 보들레르는 신과 대비되는 인간이 아니라 단지 인간일 뿐인 한 존재의 위상을 밝히는 이정표로 서 있다.

「보들레르의 마지막 나날들」은 그러한 보들레르의 최후의 순간을 소설화한 작품이다. 40대 중반의 나이로, 미국 부뤼셀의 한 호텔 그랑 미루아르에서 반신불수와 실어증으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 보들레르가 가운데 자리 잡고, 그의 내면의식과 주변인물들의 증언이 이 작품의 열개를 이룬다. 프랑스 신철학파의 기수이며,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많은 독자를 가진 「인간의얼굴을 한 야만」의 저자 베르나르 앙리 레비는, 이 최후의 보들레르에게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신화의 허식을 벗긴 인간 보들레르를 발견한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전기이되 전기가 아니고, 소설이되 소설이 아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완전한 보들레르적 세계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보들레르……」의 구조는 주변인물들의 독백과 이야기, 장 뒤발

의 일기 등이 개별적인 시선으로 보들레르를 투영하는 방법으로 나타나 있다. 그들 각각의 시선들은 보들레르라는 이름 위에서 서로 얽히고, 드디어 구체적인 한 인간 보들레르를 형성해 낸다. 보들레르의 기이한 삶과 그의 천재적 통찰이 이들의 시각에서는 각각 다른 빛깔로 비추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보들레르는 이 작품 속에서 하나의 천재적 삶의 부분과, 죄의식과 자기불신에 허덕이는 범인의 고통의 부분으로 동시에 표현된다. 작가 베르나르 앙리 레비가 약관 서른 살에 「나는 철학자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그 자신 '보들레르적' 고통을 겪고 있었으리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작품의 차디찬 어둠 속에서 바로 우리들의 고통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 고통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앙리 레비의 뜻은, "이제부터는 당신들의 몫이요"라는 데 있지 않을까.

김희영

서울시 성동구 중곡4동 6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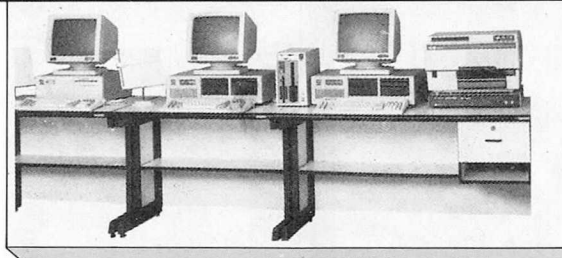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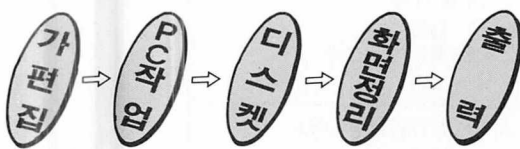
출판희소식

출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돕겠습니다.

사식비를 줄이십시오!

PC로 입력하신 원고도
디스켓만 주시면 교정지나 인화지로
처리해 드립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하십시오.



기획/편집/디자인 전문

M 밀알문화사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 2가 231-2
TEL. 268-5991/279-2626 FAX. 268-5991

전산 및 출력시스템

- 편집기능이 다양하며 화면에서 편집이 가능
- 작업기능이 신속하여 다량의 원고처리 가능
- 서식, 도표, 그래프 등 그래픽 기능과 이미지 처리 가능
- 한글, 한문, 일어, 영어등과 서체, 급수등을 자유선택
- 교정지(300, 600 LBP)로 교정후 인화지로 출력가능
- 인화지 출력이 불필요한 경우 포지필름으로도 출력가능
- 카다록등 고급 인쇄물제작 위해 수동식자기 보유

카렌다/카다록/박 스/학위논문/식순지/사보 및
월간지/각종 안내장/단행본 및 전집류/각종 홍보물제작

